



미 증시, 정치 불확실성에도 엔비디아 효과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24 일(수) 미국 증시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 독일의 기술적 침체 진입 소식에도, 엔비디아(+24.4%)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AI 관련주 동반 급등 영향에 힘입어 혼조세 마감(다우 -0.1%, 나스닥 +1.7%, S&P50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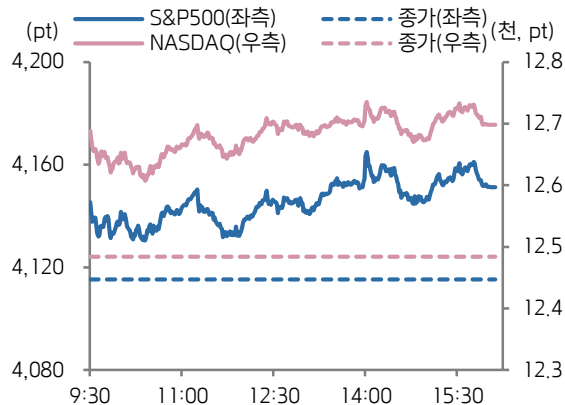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기술(+4.5%), 커뮤니케이션(+0.4%), 산업재(+0.3%) 등이 강세, 에너지(-1.9%), 유틸리티(-1.4%), 헬스케어(-1.0%) 등이 약세. 엔비디아(+24.37%)은 AI 수요 호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주력 사업부문 호실적에 힘입어 1 분기 어닝서프라이즈 및 2 분기 긍정적인 가이드스 제시에 힘입어 폭등. 이 영향으로 AMD(+11.2%), 마이크론(+4.6%), MS(+3.9%) 등 AI 관련 반도체주들도 동반 급등세를 시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현 AAA)을 "부정적인 관찰대상(기존 안정적)"에 등재하면서 향후 실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 피치 측은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임박하고 있음에도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채한도 문제를 반영했다고 설명. 다만, 미국이 X-date 를 넘기면서 이자지급을 하지 못하는 디폴트 사태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독일의 1 분기 경제성장률은 -0.3%(QoQ)로 전분기(-0.4%) 및 컨센(-0.1%)를 모두 하회했으며, 2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기술적 침체에 진입. 독일 통계청은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인해 가계소비(-1.2%,QoQ)가 위축됐다는 점이 성장을 부진은 견인했다고 언급. 미국의 1 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1.3%(QoQ)로 전분기(2.6%)에 1 배해 둔화됐으나, 이전 속보치(1.1%) 및 컨센(1.1%)를 상회. 개인소비지출(속보치 3.7% -) 잠정치 3.8%), 민간투자(-11.5% -) -12.5%), 근원 PCE(4.9% -) 5.0%) 등이 상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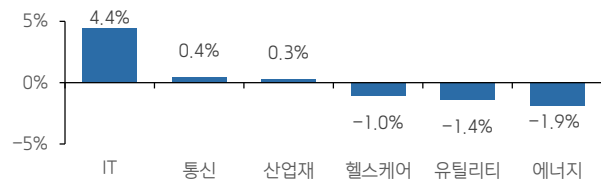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5 월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 3.5%로 동결(3 개월 연속). '23 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 월 전망치였던 1.6%에서 1.4%로 하향조정했으며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5%로 유지. 이창용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 위원들 전원일 최종금리가 3.75%가 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이는 근원 인플레이션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여부를 지켜봐야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가능성이라고 밝힘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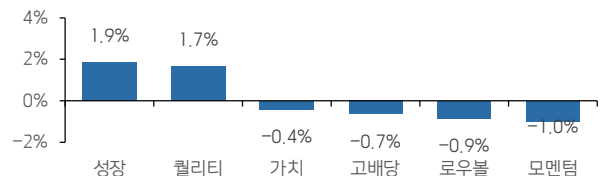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54.69	-0.5%	USD/KRW	1,326.16	+0.65%
코스피 200	335.35	-0.34%	달러 지수	104.23	+0.33%
코스닥	847.72	-0.9%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278.26	-1.34%	USD/CNH	7.09	-0.01%
S&P500	4,151.28	+0.88%	USD/JPY	140.07	+0.01%
NASDAQ	12,698.09	+1.71%	채권시장		
다우	32,764.65	-0.11%	국고채 3년	3.475	+8.9bp
VIX	19.14	-4.44%	국고채 10년	3.595	+8.8bp
러셀 2000	1,754.61	-0.7%	미국 국채 2년	4.533	+15.7bp
필라. 반도체	3,336.72	+6.81%	미국 국채 10년	3.817	+7.6bp
다우 운송	13,889.96	+1.42%	미국 국채 30년	3.995	+0.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69.64	+0.14%	WTI	71.83	-3.38%
MSCI 전세계 지수	646.00	+0.18%	브렌트유	76.26	-2.68%
MSCI DM 지수	2,796.86	+0.29%	금	1962.3	-1.05%
MSCI EM 지수	964.01	-0.71%	은	22.79	-1.42%
MSCI 한국 ETF	62.05	-0.48%	구리	358.05	+0.7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9.1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부채한도 불확실성, 미 긴축 우려 등 기존 악재가 미치는 영향 2.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시클리컬, 소비재 관련주들 영향 3. 엔비디아의 폭등이 국내 AI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에 디폴트 우려는 급격하게 확산. 그러나 장중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피치는 마감 시한 이전에 부채한도가 증액되거나 유예되지 못할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이 부채증권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 과거 S&P 가 2011 년 8 월 5 일 신용등급을 강등한 배경으로 미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했음에도 재정적자를 줄여 국가부채 문제를 크게 개선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즉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부채한도 협상 자체보다는 부채 미상환 가능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신용등급 강등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공화당 다수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협상에 일부 진전을 보이는 중. 협상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맥카시 하원의원 발언 이후 외신에서는 X-데이트 이전인 30 일에 하원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긴축 우려를 재점화하는 결과. 미국 1 분기 GDP 잠정치는 QOQ 연율 1.3%로 예비치(1.1%)를 상회. 개인소비는 3.8%(예상 3.7%), 물가지수는 4.2%(예상 4.0%)로 모두 예비치를 상회. 특히 GDP 상승분 기여도는 소비지출 중에서도내구재 중심의 상품 소비가 1.29%p(전분기 -0.11%p) 로 상승을 견인했고 전분기 기여도가 컸던 재고부문 기여도는 -2.10%p(전분기 1.47%p)로 큰폭으로 하락.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22.9 만건(예상 24.5 만건, 전주 22.5 만건) 기록하며 고용과 더불어 소비, 물가까지도 예상보다 견고한 반면 재고조정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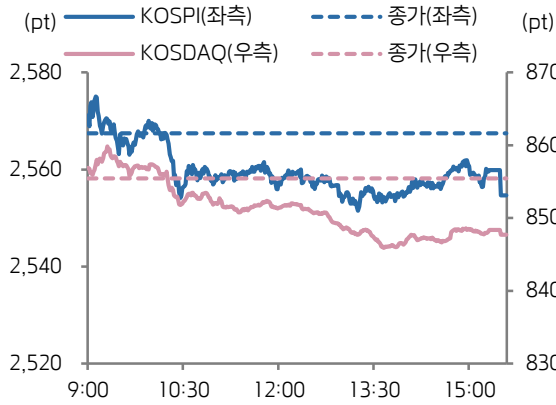
지표 발표 이후 미 국채 10 년물 금리는 3.82%까지 상승, 시장에 형성된 금리인상 시나리오 중 '6 월 추가 인상 + 7 월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4 월 PCE 물가지수 컨센서스는 YOY 4.3%(전월 4.2%), 근원 PCE 4.6%(전월 4.6%)로 지난 4 월 CPI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속도가 느릴 가능성 있으므로 발표 이후 위 전망은 강화될 수 있겠으나 물가 하락 추세는 유효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

25일(목) 국내증시는 엔비디아 시간외 급등, AI 기대감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중국 증시 급락,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 유입되며 하락 전환 마감(KOSPI -0.5%, KOSDAQ -0.9%)

금일 역시 엔비디아 급등 및 나스닥 강세 주도에 힘입어 상승 출발하겠으나,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강한 미국 경제지표 등 기존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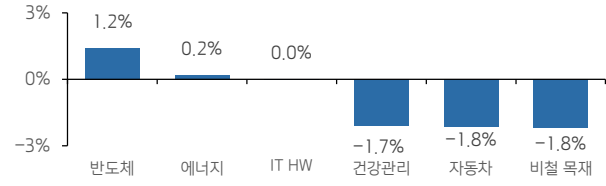
엔비디아 혼풍에 힘입은 반도체 강세에도 코스피는 계속해서 200 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음. 장중 전해진 국제신용평가사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보도에 위험선호심리 급격히 위축되며 전기전자 업종 제외 전부 약세. 한편 중국증시가 3 일 연속 하락, 홍콩증시 이틀연속 2%대 급락하며 아시아 중심으로 투자심리 위축된 점 역시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역시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가 반등하지 못하고 정책적 지원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중국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국내 시클리컬, 소비재 등의 수혜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그러나 전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제한적이며 외국인 순매수 기조 역시 지속되고 있음. 이에 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주들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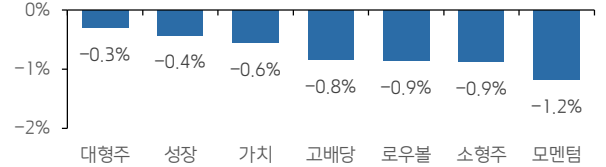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